

『內經』에 나타난 三焦有形의 根據 및 三焦의 實體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¹
윤창열^{1*}

Source And Identity Supporting The Theory of Materiality of Tri-Energizer in *Nei Jing*

Yoon Chang-yeol^{1*}

¹Dept. of Oriental Medicine, Graduate School, Daejeon University.

Objective & Method : We investigated the identity of tri-energizer, which was originally described in *Huang Di Nei Jing* and claimed by traditional scholars, and drew the following conclusions.

Result & Conclusion : According to *Huang Di Nei Jing* tri-energizer is one of the six hollow-organs and is called hollow organs for digestion and elimination, water guffer organ, or solitary hollow organ. It is believed that tri-energizer is regarded as the existing entity based on following several different sources; it functions as the course of channels, regulates wind and link and physiological function-especially intrinsic function of upper, middle, lower internal organs. It also controls syndromes and dysfunction of an illness, the surface of the body, and the cracked surface of the skin. Finally, bold and timidity depend on the tri-energizer. Experts determined the true nature of tri-energizer types. Experts include: Yu Tuan from the Ming dynasty, Tang Jong Hai and Ye Lin from the Qing dynasty, and Zhang Xi Chun from the Zhunghua Minguo period. These experts' claims are based on shape and forms of tri-energizer. Our examinations of anatomical and physiological basis on tri-energizers showed that, in a narrow sense, tri-energizer indicates visceral and parietal peritoneum and omentum surrounding the internal organs, and in a broad sense, indicates the overall membrane wrapping around the whole internal organs including five visceral organs and six hollow organs.

Key words : tri-energizer, solitary hollow organ, hollow organ for digestion and elimination, membrane of striae.

1. 緒 論

『黃帝內經』에서 처음 언급한 오장육부의 命名은 實體에 근거하여 명칭을 만들고 기능을 기술 하였을 것이다. 인체를 대상으로 생리·병리를 논하는 의학에서 추상명사를 도입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내경』에서 三焦는 六腑의 하나로써 생리적인 기능, 病機 및 병증, 장부의 표리관계, 경맥의 유주 및 絡屬關係, 외부에 상응하는 体表膜理와의 相合關係 등을 갖추고 있어 다른 장부와 차별성이 없다. 이는 三焦도 다른 장부와 마찬가지로 有形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難經』 25難과 38難에서 三焦를 無形이라고 한 이후 2000여년간 한의학계에서는 三焦無形說이 주류를 이루었다. 사물의 명칭은 형태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정말 무형이라면 어떻게 생리작용과 병증이 나오며 경맥이 流走하여 絡하고 屬할 수가 있는 것인가. 또한 『難經』은 『內經』의 이론을 부연 설명한 책으로 『內經』속에는 삼초가 有形이라는 증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도 『難經』의 無形說은 고집할 것인가.

이에 論者は 『黃帝內經』속에 나타난 三焦有形과 관련된 八大根據를 제시하고 三焦有形說을 주장한 歷代醫家들 중에서 三焦의 본질적인 實體에 가장 접근되었다고 사료되는 명대의 虞搏, 청대의 唐宗海, 葉霖 그리고 民國時代의 張錫純이 주장한 三焦有形에 관한 주장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有形의 三焦는 現代 解剖學的으로 무엇을 가리키는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찰하여 보았다.

2. 『內經』에 나타난 三焦有形의 八大根據

필자는 『三焦有形說에 관한 研究』라는 논문을 통

하여 『內經』에서 말하는 三焦가 有形이라는 것을 언급한 바가 있다. 이에 관한 내용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素問六節藏象論』에서 “脾 胃 大腸 小腸 三焦 膀胱者是 倉廩之本이니 營之居也오 名曰器라” 하였고 『素問五藏別論』에서 “夫胃 大腸 小腸 三焦 膀胱 此五者是 天氣之所生也니 其氣象天이라 故瀉而不藏하고 此受五藏之濁氣하니 名曰傳化之府라” 하였으며 『素問金匱真言論』에서 “膽 胃 大腸 小腸 膀胱 三焦 六腑는 皆爲陽”이라 하였다. 오장육부라는 말은 『內經』에서 처음 사용하였고 『내경』의 저자는 해부적으로 형태를 가진 기관을 가지고 장부를 명명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위에서 三焦는 六腑의 하나로서 器라고 하였는데 器는 물건을 담는 有形的인 것이다. 또 위에서 六腑, 傳化之府라 하였고 『靈樞本輸』에서도 中瀆之府·孤府라고 하여 三焦를 府라고 표현 하였는데 府는 물건을 갈무리 하는 창고를 말하므로 분명히 형태를 가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內經』에서 오장육부를 언급하면서 형태가 없는 三焦를 그곳에 끼워 넣었다는 것은 이치적으로, 상식적으로 납득 할 수 없는 일이다.

둘째, 『素問靈蘭秘典論』에서 “三焦者是 決瀆之官이니 水道出焉이라”하였고 『靈樞本輸』에서 “三焦者是 中瀆之府也니 水道出焉이오 屬膀胱하니 是孤之府也라” 하였다. 決瀆이란 도랑에 물이 흘러 갈 수 있도록 튀워주는 작용을 하는 기관이란 뜻으로 무형이라면 이러한 역할을 하는 기능이 나올 수 없고 또 이 문장 앞에서 언급한 君主之官·將軍之官 등이 모두 형태를 가진 心, 肝 등을 언급한 것이라는 사실을 보더라도 決瀆之官의 능력을 갖고 있는 三焦는 有形으로 존재해야만 한다. 또 中瀆이란 중간에 물이 흐르는 도랑이란 의미이고 水道 역시 물길의 뜻이므로 삼초는 有形으로 水液이 흐르는 기관임을 추측할 수가 있다. 작용은 有形에서 나오므로 이러한 작용을 하는 三焦는 有形임이 분명하다.

셋째, 『素問血氣形志篇』에서 “少陽與心主爲表裡”라 하였다. 『內經』의 모든 오장육부는 表裡로 相合하는 장부가 있고 각각의 經脈이 있으며 또한 相合하는 장부의 경맥은 絡屬의 관계를 이루는데 三焦도 六腑

* 교신저자 : 윤창열. 대전광역시 동구 대학로62(용운동)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E-mail : yooncy@dju.kr Tel : 042-280-2601

접수일(2012년 10월 9일), 수정일(1차 : 2012년 11월 8일, 2차 : 11월 13일), 게재확정일(2012년 11월 16일).

의 하나로써 心包와 表裡를 이루어 장부로서의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으므로 有形이 분명하다.

넷째, 『靈樞經脈』에서 三焦經의 流走를 기술하면서 “三焦手少陽之脈은 起手小指次指之端이라 …… 布臚中하야 散絡心包하고 下膈하야 循屬三焦라” 하였고 心包經의 流走에서는 “出屬心包絡하고 下膈하야 歷絡三焦라”고 하였다. 여기서 三焦經은 횡격막을 뚫고 내려와 삼초에 循屬한다고 하였고 표리를 이루는 心包經도 횡격막을 뚫고 내려가 三焦에 歷絡한다고 하였는데 三焦가 無形이라면 經脈이 나올 수도 없고 絡屬하는 기관도 없을 것이니 三焦가 有形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된다.

다섯째, 『靈樞本藏』에서 “腎合三焦膀胱하니 腠理毫毛其應이라” 하고 구체적으로 “密理厚皮者는 三焦膀胱이 厚하고 粗理薄皮者는 三焦膀胱이 薄하고 疏腠理者는 三焦膀胱이 緩하고 皮急而無毫毛者는 三焦膀胱이 急하고 毫毛美而粗者는 三焦膀胱이 直하고 稀毫毛者는 三焦膀胱이 結也라” 하였는데 三焦에서 厚薄과 緩急과 直結을 分別할 수 있다면 實物이 있다는 것을 더욱 분명히 알 수가 있다.”

여섯째, 『靈樞論勇』에서 “勇士者는 目深以固하며 長衡直揚하며 三焦理橫이라 (용감한 사람은 눈이 깊이 박히고 견고 하며 눈통이가 길면서도 곧으며 삼초의 주리가 가로로 되어 있다)” “怯士者는 目大而不減하며 陰陽相失하며 其焦理縱이라(겁이 많은 사람은 눈은 비록 크지만 깊이 들어가지 않았고 기혈이 조화를 이루지 못해 정신이 흩어지고 어지러우며 삼초의 주리가 세로로 되어 있다.)”고 하였다. 여기에서도 만약 三焦가 無形이라면 三焦에 對應하는 腠理가 橫하다거나 縱하다고 말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일곱째, 三焦는 앞에서 언급한 決瀆之官, 中瀆之府로써 水道의 작용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上焦, 中焦, 下焦 모두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靈樞營衛生會』에서 “上焦開發하야 宣五穀味하야 熏膚充身澤毛라” 하고 『靈樞癰疽』에서 “上焦出氣하야 以溫分肉이라” 하였는데 이는 上焦가 水穀의 精氣를 全身에 敷布하고 肌膚를 溫煦하는 작용이 있음을 나타낸다. 『靈樞營衛生會』에서 “中焦亦并胃中이라 …… 此所受氣者는 泌糟粕하고 蒸津液하야 化其精微

하야 上注于肺脈하야 乃化而爲血이라” 하였고, 『靈樞決氣』에서 “中焦受氣取汁하야 變化而赤을 是謂血”이라 하였는데 이는 中焦가 腐熟水穀하고 化生血氣하는 작용이 있음을 나타낸다. 『靈樞營衛生會』에서 “下焦者는 別回腸하야 注于膀胱而滲入焉이라 故水穀者는 常并居于胃中이라가 成糟粕하고 而俱下于大腸하야 而成下焦하고 滲而俱下하야 濟必別汁하고 循下焦而滲入膀胱焉이라.” 하였는데 이는 下焦가 泌別清濁하고 排泄二便하는 작용이 있음을 나타낸다. 이처럼 三焦는 전체적인 작용 뿐만 아니라 上焦, 中焦, 下焦의 개별적인 기능까지 가지고 있는데 三焦가 無形이라면 이러한 기능은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여덟째, 有形의 장기가 있으면 고정된 부위가 있어 이곳에 병변이 발생하고 장기가 있으면 기능이 있어 이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병증이 유발된다. 『內經』에 언급된 삼초의 병증은 三焦病, 三焦脹, 三焦約, 三焦咳 등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병증은 다른 장부의 병증과 나란히 언급되어 있다. 따라서 다른 장부가 有形이라면 三焦도 당연히 有形의 장기가 될 것이며 三焦가 無形이라면 이러한 病證도 나올 수가 없을 것이다. 병증에 대한 분석은 뒤에서 상술 할 것이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三焦가 有形이나 無形이나 하는 것의 논쟁의 기준은 三焦의 명칭과 기능, 작용, 표리관계, 경맥유주, 병증 등을 최초로 언급한 『內經』을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難經』은 『內經』의 내용을 부연 설명한 책이므로 有形 無形 논쟁의 기준이 될 수가 없다. 『內經』의 원문을 통해 살펴 본 八大根據에 의거하여 三焦는 有形이 확실하다고 사료된다.

3. 三焦의 實體를 밝힌 歷代 醫家

三焦有形說은 北宋時代부터 처음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단편적이거나 본질에서 어긋난 주장이 없지 않았다. 筆者의 입장에서 『內經』에서 말하는 三焦의 실체에 가장 접근된 이론을 주장한 의가로는 명대의

虞搏, 청대의 唐宗海 葉霖 그리고 民國시대의 張錫純을 꼽을 수 있다.

虞搏은 上,中,下焦를 나누어 설명하면서 “其體는 有脂膜在腔子之內하여 包羅乎六臟五腑之外也라”¹⁾하였다. 이는 三焦의 실체가 주머니처럼 생긴 것 안에 脂膜이 있는데 이것이 오장육부를 밖에서 싸고 있는 것 이라고 하였다.

唐宗海는 『血證論臟腑病機論』에서 “삼초는 古作 膻니 卽人身上下內外相聯之油膜也라”²⁾하였고 『醫經正義』에서 “焦는 古作 膻니 卽人身之膈膜으로 所以行 水也라”³⁾고 하였으며 또 “焦는 古作 膻니 乃人身內外之網膜이라”⁴⁾하였다. 당종해의 주장은 대단히 합리적인데 이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三焦의 焦字를 옛날에 膻字로 썼다는 것은 三焦가 우리 몸안에 실제로 존재하는 장기라는 것이다. 이는 오장육부의 명칭에 모두 “육달월” 변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膻는 사전에 “肉不滿”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火氣의 作用(즉 焦이다.)에 의해 장기의 조직이 치밀하지 못하고 성긴 조직으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셋째, 이 焦는 구체적으로 油膜,膈膜으로 이속에서 水를 運行시키고 있다고 하였다. 그가 말하고 있는 油膜, 膈膜은 단순하지 않고 다양한 용어로 다양한 부위를 설명하고 있는 데 종합해서 핵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서양 의사들이 말하는 連網이 膈膜인데 세속에서 말하는 網油 및 周身之膜이 모두 해당된다. 網油는 방광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물이 網油를 통해 방광으로 滲入되어 들어간다. 두 신장사이에 油膜이 있는데 腎系이다. 이곳에서 板油를 생해 횡격막으로 연결되고 흉중으로 들어가 心包絡으로 들어가고 기관지, 기관을 따라 목구멍까지 올라가 밖으로 나가 손등과 가슴 앞의 膜理가 되는데 이것이 上焦이다.

中下焦는 板油가 網油를 생해 腸, 胃, 膀胱과 연결된다. 板油로부터 장간막으로 연결되어 소장에 부착되고 밖으로 나가 腰腹의 膜理가 되는 것이 中焦이다. 板油로부터 網油에 연결되어 뒤로는 대장에 연결되고 앞으로는 방광에 연결되고 가운데는 包室이 되며 밖으로 나가 臀部, 脛部, 小腹의 膜理가 되는데 이것이 下焦이다. 피부를 벗겼을 때 白膜이 드러나는데 이것이 모두 三焦의 膜理이다”⁶⁾

당종해가 말하는 板油의 개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후복벽을 덮는 신장근처의 벽쪽복막(parietal peritoneum)으로 생각되며 벽쪽복막은 이곳에서 올라가 횡격막의 下面에서 肝을 싸는 내장쪽복막(visceral peritoneum)으로 이어지는데 이 부분을 당종해는 上焦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

中焦는 후복벽에서 나온 복막이 가로잘록창자간막(횡행결장간막 transverse mesocolon 을 이루어 가로잘록창자(횡행결장)를 싸고 이것이 다시 후복벽을 따라 내려가 부채팔로 퍼져 빈창자(공장 jejunum), 돌창자(회장 ileum)를 싸는 창자간막(장간막 mesentery)을 이루고 또 막창자꼬리(충수 appendix)를 싸는 막창자꼬리간막(충수돌기간막 mesoappendix)을 이루는데 이를 말하는 것 같다.

下焦는 후복벽에서 나온 복막이 다시 아래로 내려가 골반강에 이르러 구불잘록창자간막(s상결장간막 mesosigmoidcolon)을 만든다음 최하부에서 곧창자(직장)의 전면을 싸 다음 남자는 방광의 상면을 거쳐 전복벽으로, 여자는 자궁전체와 방광상면을 차례로 덮은 다음 전복벽으로 이어지는 부분을 말하는 것 같다.

당종해가 말한 삼초는 복강에서 장부를 싸고 있는 복막을 기준하여 말했고 人身內外의 모든 膜까지를 확대하여 포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腹膜을 설명할 때 해부학에서는 전복벽에서 시작하는데 당종해가 후복벽으로부터 시작한 이유는 兩腎사이의 명문이 三焦之氣가 나오는 근원이 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葉霖은 『難經·38難』에서 三焦를 外府라고 한 것

1) 虞搏. 醫學正傳. 서울. 醫藥社 1973. p.70.
2) 唐宗海. 血證論. 上海人民出版社. 1977. p.11.
3) 唐宗海. 唐容川醫學全書. 北京. 中國醫學出版社. 1999. p.22.
4) 唐宗海. 唐容川醫學全書. 北京. 中國醫學出版社. 1999. p.373.
5) 羅竹風. 主編. 漢語大詞典6. 上海. 漢語大詞典出版社. 1994. p.1380.

6) 尹暢烈. 三焦有形說에 관한 研究. 大韓醫學原典學會誌. 2011. 24(6). pp.140-141.

에 대해 “外府는 謂在諸藏府之外也라”⁷⁾ 하여 三焦는 有形이고 모든 오장육부를 밖에서 싸고 있는 것이라 하였다. 또한 그는 난경에서 삼초를 無形이라 한 이유를 “三焦之形質은 可考나 三焦之氣化는 難見故로 曰有名而無形也라”⁸⁾ 했다고 하였다.

그는 『難經正義』39難 註에서 “手少陽三焦는 乃腔內脂膜이니 爲藏府之郭郭이라”⁹⁾ 하였고 66難 에서는 “三焦는 乃腹包膜이니 其連網脂膜이 蓋三焦之物이니 爲統攝藏府之郭郭也라”¹⁰⁾ 하였다. 郭은 외성(外城)부자로 郭郭이란 성을 다시 둘러싸고 있는 外城으로 三焦를 오장육부를 싸고 있는 일체의 막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먼저 25難 주석에 있는 내용을 요약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¹⁾ “『내경』에서 小陽屬腎이라 한 것은 (三焦가) 腎中の 命門에 속한다는 것이다. 命門이 腎系나 腎系에서 밑으로 내려가 脂膜을 생한 것이 三焦의 근원이다. 서양의사들이 腹包膜이라 한 것이 이것이다. 腹膜의 근원은 腎系의 아래에 있는 방광이다. 위로 올라가 대장 소장 자궁 음경을 싸고 더 올라가 肝과 胃를 싸고 횡격막과 연결된다. 횡격막의 위에서 心包絡과 연결된다. 心肺는 복막의 위에 있기 때문에 싸지를 못한다.” 이것은 분명 그가 서양의 해부지식을 습득한 뒤에 복막과 여기에서 나온 내장쪽복막(장측복막 visceral peritoneum)이 복강의 장부를 싸고 있는 모습을 기술한 것인데 이것을 그는 三焦라고 본 것이다. 그는 이어서 배 앞에 하나의 空囊이 있다고 했는데 이는 복막강(peritoneal cavity)에 대한 묘사이고 肝胃의 뒤에 空竅가 있다는 것은 그물막 주머니(망낭 omental bursa)에 대한 기술이고 肝胃連膜은 작은그물막(소망 lesser omentum)에 대한 설명으로 보여지는데 이는 그가 서양해부학 지식을 습득한 뒤에 腹膜을 三焦로 인정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된다. 葉霖이 본 三焦는 腹膜뿐만 아니라 횡격만 위의 心을 싸고 있는 心包

와 肺를 싸고 있는 가슴막(흉막 pleura)까지를 포함한다고 생각한다.

張錫純은 주로 唐宗海가 주장한 삼초는 곧 網油이고 그 根蒂는 命門과 연결되어 있다는 주장에 동조하면서 당종해의 의견을 보완 설명하고 있다.

그는 “『內經·脹論篇』에서 ‘三焦脹者는 氣滿于皮膚中하니 輕輕然而不堅이라’고 하였다. 이른바 皮膚中이라는 것은 腠理의 膜이다. 人身의 膜原은 안과 밖이 중형으로 서로 관통되어 있으며 網油는 膜중에서 가장 큰 것이기 때문에 網油에 脹病이 있으면 밖으로 腠理에 도달할 수 있으니 이것이 또한 삼초가 網油라는 분명한 증거이다”¹²⁾라고 하여 網油가 腠理之膜과 연결되어 있어 三焦之氣가 腠理에까지 도달한다고 하였다. 이는 『金匱要略』에서 “脹者는 是三焦通會元眞之處오 理者는 是皮膚臟腑之文理也라”¹³⁾고 한 말과도相合한다.

그는 또 臍下脂膜은 下焦가 되고 包脾絡胃之脂膜은 中焦가 되고 心下膈膜及連絡心肺之脂膜은 上焦가 된다¹⁴⁾고 하였다.

4. 해부학적으로 살펴본 삼초

위에서 언급한 4명의 의견을 종합하여 三焦의 형태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삼초는 기본적으로 오장육부를 싸고 있는 모든 膜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더 축소해서 최초의 개념을 말한다면 복강안에 있는 腹膜과 이것이 연장되어 복강안의 장기를 싸고 있는 내장쪽복막을 포함하여 큰 그물막(대망 greater omentum) 작은 그물막(소망 lesser omentum)까지를 아우른다. 『靈樞經脈』에서 三焦經脈의 流走를 설명할 때 횡격막의 아래로 내려가 循屬三焦 한다고 하였고 心包經의 流走를 설명할 때

7) 葉霖, 難經正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1, p.69.

8) 葉霖, 難經正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1, p.69.

9) 葉霖, 難經正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1, p.70.

10) 葉霖, 難經正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1, p.116.

11) 尹暢烈, 三焦有形說에 관한 研究,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1, 24(6), pp.139-140.

12)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中冊, 中國, 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99, p.195.

13) 郭霽春, 王玉興 編著, 金匱要略校注語譯,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3.

14)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中冊, 中國, 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99, p.196.

횡격막 아래로 내려가 歷絡三焦 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횡격막 아래로 국한 시켜 본 것이다. 여기서 쫓을 循字와 지날 歷字를 쓴 이유는 복강 안에서 복막이 여러 장기를 싸고 널리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또한 복강 안에 있는 창자 간막, 그물막 등에 있는 지방과 신장을 싸고 있는 지방조직까지도 삼초의 범위에 포함 시킬 수 있다. 삼초의 범위를 좀더 확대하면 횡격막과 횡격막 위의 심장과 폐장을 싸고 있는 심낭과 흉막까지로 확대 할 수 있다. 『내경』에 있는 上焦의 위치와 기능을 설명하려면 이를 포함시키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장부의 개념은 아니지만 三焦之氣가 운행하는 범위는 肌肉을 싸고 있는 막과 피부 안에 있는 막을 위시하여 인체 내에 있는 모든 막까지를 포괄한다.

『靈樞經津液別』에서 “水穀入于口 … 故三焦出氣 以溫分肉하며 充皮膚라” 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서의 三焦는 水穀精微之氣와 津液이 肌肉과 腠理 사이에 出入하는 通路를 가리키고 있다.

우리 인체는 세포가 모여 조직을 이루고 조직이 모여 기관을 이루고 있는데 모든 세포와 조직 기관은 모두 막이 둘러싸고 있다. 심지어 세포안의 소기관들도 막에 싸여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核膜이다. 막은 없는 곳이 없다. 혈관에는 혈관막이 있고, 뼈에는 골막이 있고 뇌에는 뇌막이 있고 신경에는 신경막이 있고 척수에는 척수막이 있다. 또 하나의 조직과 기관에는 하나의 막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근육을 예로 들어 보면 근육을 전체적으로 싸고 있는 막을 근육바깥막(근상막 epimysium)이라 하고 여러 개의 근섬유가 한 묶음을 이룬 근육다발(근속 muscle bundles)을 싸고 있는 막을 근육다발막(근외막 perimysium)이라 하며 하나하나의 근육섬유(근섬유 muscle fiber)를 싸는 막을 근육섬유막(근내막 endomysium)이라 하는데 근육섬유는 다시 근초(sarcolemma)로 온통 싸여 있다. 이러한 막은 모두 三焦의 原氣가 出入하는 道路가 된다.

5. 結 論

『黃帝內經』속에 나타난 三焦有形의 八大根據와

歷代醫家 중에서 三焦의 실체를 밝힌 4명의 醫家, 그리고 이들이 주장한 三焦의 實體를 해부학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황제내경』에서 三焦는 六腑의 하나로써 傳化之府, 中瀆之府, 孤府라 칭하고 장부의 배합관계, 경맥의 유주와 絡屬관계, 생리적인 기능, 특히 上中下三焦의 고유한 기능, 病機와 病證, 体表의 腠理와 相合關係, 勇怯에 따른 三焦腠理의 縱橫등의 八大根據에 의해 다른 장부와 동일하게 有形이라 생각된다.

2. 명대의 虞搏은 오장육부를 밖에서 싸고 있는 腔子內脂膜說을 주장했는데 삼초의 실체를 최초로 가장 정확하게 파악했다고 사료된다.

3. 청말의 唐宗海는 三焦의 焦는 焦로써 우리 몸 안에 實存하는 장기이고 이는 구체적으로 網油, 油膜, 膈膜이고 이 속에 水를 運行시키고 있다하였으며 더 나아가 인체의 周身之膜까지 三焦의 범위 속한다고 하였는데 해부학적으로 횡격막, 배막, 그물막, 창자간막 및 人身内外의 모든 膜을 포함하고 있다.

4. 청말의 葉霖은 三焦는 藏府之郭郭으로 腹包膜, 連網脂膜으로 이들이 膀胱, 大腸, 小腸, 자궁, 肝, 胃를 싸고 올라가 횡격막과 연결되고 횡격막은 위에서 心包絡과 연결된다 하였는데 해부학적으로 벽쪽복막, 내장쪽복막, 횡격막, 가슴막, 심포등을 포괄한다.

5. 민국시대의 장석순은 唐宗海의 주장에 동조하였고, 특히 網油는 인체에서 가장 큰 막으로 三焦之膜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곳에 三焦之氣가 운행한다 하였으며 膈下脂膜이 下焦가 되고 脾, 胃를 싸는 막이 中焦가 되고 횡격막, 가슴막, 심포가 上焦가 된다고 하였다.

6. 이들이 주장한 내용을 근거로 三焦의 形態를 해부학적으로 살펴보면 협의적으로는 벽쪽 복막과 이것이 연장되어 복강안의 장기를 싸고 있는 내장쪽 복막, 그물막 등을 가리키며, 광의적으로 오장육부

를 싸고 있는 모든 막을 지칭하며 더 확대하면 膜理
之膜을 포함하여 인체 내의 모든 막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參考文獻

<논문>

1. 尹暢烈. 三焦有形說에 관한 研究. 大韓韓醫學
原典學會誌. 2011. 24(6). pp.139-140,
140-141.

<단행본>

1. 郭靄春, 王玉興 編著. 金匱要略校注語譯.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3.
2. 羅竹風 主編. 漢語大詞典6. 上海. 漢語大詞典
出版社. 1994. p.1380.
3. 唐宗海. 唐容川醫學全書. 北京. 中國醫學出版
社. 1999. p.22, 373.
4. 唐宗海. 血證論. 上海人民出版社. 1977. p.11.
5. 葉霖. 難經正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1. p.69, 70, 116.
6. 虞搏. 醫學正傳. 서울. 醫藥社. 1973. p.70.
7.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中冊. 中國. 河北科學技
術出版社. 1999. p.195, 196.

